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 1.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욕구

#### 가. 부모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표 1〉의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부모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희망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3.8%가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희망률은 각각 31.7%, 17.3%, 16.5%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정봉사원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더 높았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희망률은 지역별,



卞在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대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의 적정비용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1회에 1만원 미만을 적정비용으로 응답한 비율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39.3%, 주간보호시설 48.8%, 단기보호시설 39.7%로 나타났으며, 무료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3.0%, 14.6%, 15.1%로 나타나 무료 또는 1만원 미만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표 1. 64세 이하 비노인층 응답자의 부모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sup>1)</sup>  
(단위: %)

구 분		전체(대상자수)	재가복지서비스 종류 <sup>2)</sup>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전 체		43.8 (6,918)	31.7	17.3	16.5
지역	동 부	45.6 (5,691)	33.2	18.0	16.9
	읍·면부	35.3 (1,227)	25.1	14.3	14.9
성	남 자	36.1 (1,915)	25.3	15.2	13.3
	여 자	46.8 (5,002)	34.2	18.1	17.8
연령	24세 이하	49.0 ( 522)	36.5	20.5	16.3
	25~34세	51.4 (2,447)	37.8	20.0	17.8
	35~44세	44.9 (2,255)	32.7	17.5	17.7
	45~54세	34.4 (1,158)	22.5	14.7	15.9
	55~64세	19.8 ( 536)	15.1	6.9	7.4
교육 수준 <sup>3)</sup>	초교 이하	25.1 ( 950)	16.0	11.3	11.3
	중학교	34.9 (1,016)	25.2	15.3	15.1
	고등학교	45.0 (3,121)	31.3	18.1	17.8
	전문대 이상	56.6 (1,790)	44.4	20.5	17.9
가구 소득 (월평균) <sup>4)</sup>	40만원 미만	34.5 ( 294)	24.7	18.7	19.3
	40~79만원	39.2 ( 881)	28.9	18.1	16.4
	80~149만원	37.9 (2,511)	26.9	15.0	15.0
	150~249만원	49.2 (2,206)	35.9	19.7	17.7
	250만원 이상	54.5 ( 960)	40.6	16.9	17.1

주: 1) 부모가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복수응답 결과임.

3) 무응답 40명 제외

4) 무응답 66명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나.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표 2〉의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6.1%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을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면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이 높았으며, 특히 25~34세와 35~44세에서는 각각 76.5%, 71.3%로 다른 연령층에서 보다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희망률은 각각 44.4%, 26.2%, 28.1%로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부모를 위한 서비스에서의 결과와 같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정봉사원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에는 단기보호시설이 주간보호시설보다 더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이용희망률 측면에서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부모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희망률보다도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희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64세 이하 비노인층의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시 적정비용에 대한 태도는 1회 1만원 미만을 적정 비용으로 보는 비율이 가정봉사원서비스 40.4%, 주간보호시설 50.4%, 단기보호시설 39.3%로 나타났으며, 무료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7%, 19.6%, 18.1%로 나타났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희망률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았으며, 이용시 적정비용에 대한 태도는 1회 무료 또는 1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가. 노인복지프로그램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의

표 2. 64세 이하 비노인층 응답자의 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  
(단위: %)

구 분		전체(대상자수)	재가복지서비스 종류 <sup>1)</sup>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전 체		66.1 (8,358)	44.4	26.2	28.1
지역 <sup>2)</sup>	동 부	68.3 (6,714)	45.6	26.8	28.9
	읍·면부	56.9 (1,602)	39.3	23.8	24.9
성 <sup>2)</sup>	남 자	55.5 (2,367)	36.8	25.3	24.3
	여 자	70.3 (5,949)	47.4	27.3	29.7
연령 <sup>2)</sup>	24세 이하	69.7 ( 544)	46.7	28.5	23.6
	25~34세	76.5 (2,486)	50.8	29.1	32.3
	35~44세	71.3 (2,415)	49.3	27.2	31.5
	45~54세	57.4 (1,543)	36.3	24.8	25.9
	55~64세	46.1 (1,328)	31.7	19.7	18.7
교육 수준 <sup>3)</sup>	초교 이하	44.6 (1,712)	28.7	19.2	19.9
	중학교	60.7 (1,302)	41.0	25.5	26.0
	고등학교	71.2 (3,377)	47.6	28.2	30.4
	전문대 이상	80.7 (1,872)	55.2	29.9	33.1
가구 소득 (월평균) <sup>4)</sup>	40만원 미만	53.8 ( 549)	35.8	27.1	26.7
	40~ 79만원	55.3 (1,314)	37.5	24.7	23.5
	80~149만원	62.9 (2,917)	42.0	25.1	26.5
	150~249만원	72.8 (2,428)	48.9	28.0	31.1
	250만원 이상	81.4 (1,026)	54.3	27.6	33.1

주: 1) 복수응답 결과임. 2) 무응답 42명 제외  
 3) 무응답 95명 제외 4) 무응답 124명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경제수준을 보완하기 위한 노령수당제도,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와 인재은행이 있으며,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노인의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과 보건(지)소, 노인의 여가와 이용시설로서 노인정, 노인대학/노인학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또한 노인의 입소시설로서 무료양로시설/요양시설과 실비양로시설/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요양시설이 있으며, 노인에 대한 세금혜택으로서 주택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인적공제가 있다.

<표 3>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를, 이용경험률, 향후 이용희망률 및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노인의 경제수준을 보완하기 위한 노령수당제도, 노인공동작업장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인재은행의 인지율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2%, 16.0%, 15.1%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령수당제도와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 0.7%였으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인재은행의 경우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비스 이용중인 비율은 노령수당제도의 경우 6.8%, 노인공동작업장 0.3%,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인재은행의 경우 이용중인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수당제도와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인재은행의 이용희망률은 각각 61.9%, 23.6%, 15.5%로 직접적으로 수입이 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령수당 38.2%, 노인공동작업장 68.0%로 높게 나타났다. 경로식당에 대한 인지율은 39.9%이며, 이용경험률은 5.8%이다. 이용경험자 중 경로식당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69.0%이며, 앞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17.8%이다.

노인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과 보건(지)소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전문병원의 인지율은 20.6%로 낮은 편이며, 이용경험률도 매우 낮아 0.7%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이용희망률은 40.1%에 달하고 있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인지율은 매우 높아 대부분의 노인(97.2%)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64.8%에 달하고 있어 노인들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보건(지)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볼 수 있다. 향후 이용희망률도 67.2%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보건(지)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 중 59.0%는 만족하고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로서 노인정, 노인대학/노인학교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에게 가장 보편적인 여가시설인 노인정의 경우 95.4%의 노인이

보건(지)소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9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률(64.8%) 및 향후 이용희망률(67.2%)도 높아 노인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볼 수 있다.

표 3.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이용경험률·향후 이용희망률·만족도 (단위: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률		향후 이용희망률 <sup>1)</sup>	만족도 <sup>2)</sup>			계 (명)
		현재 이용중	이용경험 있음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노령수당제도	19.2	6.8	0.7	61.9	38.2	39.2	22.6	100.0 ( 165)
노인공동작업장	16.0	0.3	0.7	23.6	68.0	22.9	9.1	100.0 ( 22)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인재은행	15.1	-	0.1	15.5	-	-	-	-
경로식당	39.9	1.8	4.0	17.8	69.0	24.5	6.5	100.0 ( 125)
노인전문병원	20.6	0.2	0.5	40.1	36.1	37.3	26.6	100.0 ( 16)
보건(지)소	97.2	24.1	40.7	67.2	59.0	29.9	11.1	100.0 (1,428)
노인정	95.4	28.1	19.5	45.8	58.4	27.6	14.0	100.0 (1,051)
노인대학/노인학교	75.4	2.0	7.1	18.2	63.7	25.5	10.8	100.0 ( 198)
노인(종합)복지관	42.1	2.3	3.3	21.6	58.6	31.6	9.8	100.0 ( 125)
무료양로·요양시설	61.0	-	-	13.7	-	-	-	-
실비양로·요양시설	31.0	-	0.1	6.7	-	-	-	-
유료양로·요양시설	53.4	-	-	5.7	-	-	-	-
주택양도소득세	14.1	-	0.2	11.6	-	-	-	-
상속세 인적공제	12.0	-	0.1	10.1	-	-	-	-

주: 1) N=2,215명, 무응답 9명 제외

2) 복지서비스 종류별 이용경험자의 만족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노인정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이용률도 47.6%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희망률도 비슷한 수준이 45.8%이다. 또한 노인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58.4%가 만족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노인학교·노인대학의 경우 인지율이 75.4%로 높은 편이나 이용경험률은 9.1%에 불과하고 이용희망률은 18.2%이다. 노인학교·노인대학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 중 63.7%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인지율은 42.1%로 나타났으나, 이용경험률은 5.6%에 불과하며 향후 이용희망률은 21.6%이다. 노인(종합)복지관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은 58.6%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노인을 위한 양로·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무료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61.0%, 실비시설은 31.0%, 유료는 53.4%로 무료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경험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어 이용희망률이 무료 13.7%, 실비 6.7%, 유료 5.7%이다.

노인의 세금혜택인 주택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한 인지율은 전체의 14.1%와 12.0%였으며, 이용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전체의 0.2%와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용희망률도 전체의 11.6%와 10.1%로 매우 저조하였다.

#### 나.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의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인지율은 각각 18.5%, 2.0%, 1.8%로 나타났으며, 가정봉사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에 비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인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지율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성별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인지율이 높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을 살펴보면, 가정봉사원서비스가 0.6%의 낮은 이용경험률을 보이며,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정봉사원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차이에서 동부는 1.0%의 이용경험률을 보이나 읍·면부의 경우는 이용경험률이 없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희망률은 가정봉사원서비스 25.2%, 주간보호시설 18.2%, 단기보호시설 15.7%로 나타나며, 가정봉사원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태도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15.9%이고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9.3%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희망률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성별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534명(동부 372명, 읍·면부 162명)에 대한 조사 결과, 가정봉사원서비스의 내용은 가사지원서비스, 건강검진 및 병간호, 입욕 및 대소변수발, 생활상담 및 말상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희망빈도는 주 1회 또는 주 2회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1회 방문시 서비스 희망시간은 1~2시간 미만이나 2~

재가복지서비스 중 가정봉사원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태도는 무료라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15.9%이고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9.3%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성별 재가복지서비스 인지도·이용경험률 및 향후 이용희망률  
(단위: %)

구 분		전체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가정봉사서비스	인지도	18.5	22.4	11.7	22.6	16.1
	이용경험률	0.6	1.0	-	0.2	0.9
	향후 이용희망률 (명) <sup>1)</sup>	25.2 (2,217)	27.8 (1,404)	20.7 (813)	28.5 (821)	23.2 (1,396)
주간보호시설	인지도	2.0	2.7	1.0	3.9	0.9
	이용경험률	-	-	-	-	-
	향후 이용희망률 (명) <sup>2)</sup>	18.2 (2,217)	19.7 (1,403)	15.6 (814)	22.5 (822)	15.6 (1,395)
단기보호시설	인지도	1.8	2.4	0.8	3.2	1.0
	이용경험률	-	-	-	-	-
	향후 이용희망률 (명) <sup>2)</sup>	15.7 (2,217)	17.6 (1,403)	12.4 (814)	19.2 (822)	13.6 (1,395)

주: 1) 무응답자 7명 제외

2) 대리응답자 148명과 무응답자 7명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3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의 도움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시설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이용시 희망기간은 1주일 정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향후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1일 적정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61.4%가 무료이용을 희망했으며, 1만원 미만 또는 무료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74.6%로 나타났다.

단기보호시설의 향후 이용하겠다는 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이용시 희망기간은 1주일 정도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1주일~1개월 미만이 25.4%로 나타났다. 이용시 1일 적정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56.2%가 무료이용을 희망했으며, 1만원 이하 또는 무료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91.2%로 높게 나타났다.

### 3. 여가활동실태 및 서비스이용 욕구

#### 가. 사회단체 참가실태

사회단체종류별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표 5>

에서와 같이 전체응답자 중 52.7%가 종교활동단체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사교단체 28.8%, 운동단체 2.9%, 노인대학 1.0%, 문화활동단체와 봉사활동단체는 각각 0.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종교활동단체에의 참가가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가 읍·면부보다 종교활동이나 사교단체활동에 있어 더 활발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종교활동에 있어 여자의 가입률이 남자의 가입률보다 더 높았으며, 사교단체에는 남자의 가입률이 여자의 가입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사교단체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종교활동단체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가구소득면에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단체의 가입률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종교활동단체의 가입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 및 사회단체별 가입기간을 보면 전국적으로 종교활동단체와 사교단체에 10년 이상 가입한 응답자가 각각 79.6%, 77.2%나 되었고,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봉사활동단체, 기타단체의 경우도 10년 이상 가입한 노인이 40% 이상이었다. 노인대학 가입자는 1~5년 미만이 63.1%로 가장 많았다.

사회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역별 사회단체에 대한 월참여빈도를 보면 전국 및 동부, 읍·면부에서 공통적으로 종교활동단체, 사교단체, 문화활동단체는 월 1회의 참여빈도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운동단체의 경우는 거의 매일 간다는 노인이 전국을 대상으로 볼 때 35.9%로 매우 높았다.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단체에 가입한 노인의 80~9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만족한다는 응답도 종교활동단체와 사교단체에서 각각 48.8%와 42.5%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다른 단체활동에서는 모두 50%를 넘었으며, 특히 봉사활동단체의 경우는 70.2%로 다른 단체에 비해 사회단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가입률은  
종교활동단체가 52.7%,  
사교단체 28.8%,  
운동단체 2.9%,  
노인대학 1.0%, 문화와  
봉사활동단체는 각각  
0.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종교활동단체에의  
참가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의 일반특성별·사회단체종류별 가입률

(단위: %)

구 분		종교활동 단체	사교 단체	문화활동 단체	운동 단체	봉사활동 단체	노인 대학	기타 단체
전 체 <sup>1)</sup>		52.7	28.8	0.7	2.9	0.7	1.0	3.4
지역	동 부	56.4	30.4	1.0	3.6	0.7	1.2	3.1
	읍·면부	46.5	26.0	0.2	1.8	0.5	0.6	3.8
성	남 자	36.0	43.5	0.8	7.2	1.2	0.6	4.4
	여 자	62.6	20.2	0.7	0.4	0.4	1.2	2.7
연령	65~69세	54.0	40.2	0.7	4.1	1.2	0.7	3.6
	70~74세	53.5	28.2	0.7	2.7	0.2	1.1	3.6
	75세 이상	50.3	14.3	0.8	1.5	0.4	1.1	2.8
건강상태	매우 좋다	45.7	47.6	1.2	5.7	-	-	3.2
	좋은 편이다	50.6	43.7	1.1	8.2	1.3	1.2	5.9
	보통이다	53.4	34.9	0.5	2.8	0.9	0.6	1.5
	약간 나쁘다	55.4	23.3	0.7	1.1	0.6	1.2	3.2
	아주 나쁘다	51.6	16.4	0.4	0.7	0.1	0.9	2.9
가구 소득 (월평균) <sup>2)</sup>	40만원 미만	52.5	16.2	0.3	1.2	-	1.5	4.0
	40~79만원	48.8	29.5	0.9	1.9	0.5	0.6	3.6
	80~149만원	54.1	37.0	1.4	4.6	1.0	0.8	1.9
	150~249만원	59.0	36.4	-	5.2	1.4	0.2	2.9
	250만원 이상	51.6	47.6	1.4	6.0	2.2	3.0	7.0
가구 형태	노인독신	59.1	18.1	0.8	1.8	0.3	2.4	2.4
	노인부부	46.1	36.2	0.8	5.1	0.3	0.6	3.8
	자녀동거	53.1	28.4	0.6	2.2	1.0	0.8	3.4
	기 타	63.3	30.1	1.3	1.2	1.3	-	3.6

주: 1) N=2,218명, 대리응답자 148명과 무응답 6명 제외

2) 무응답 6명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1998.

#### 나. 향후 사회단체와 평생교육 참가희망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에 대한 가입희망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종교활동이 5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교단체로 30.5%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사교단체에 대한 가입희망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종교활동단체 가입희망이 63.6%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평생교육 참가희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8%가 평생교육을 희망하지 않았다. 희망하는 경우는 14.0%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2.2%였다.

평생교육 참가희망 노인에 대하여 평생교육 종류별 참가희망률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8.6%가 한글·한자 교육참여, 22.8%는 전통문화, 22.2%는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참여를 가장 선호했으며, 여자의 경우 한글·한자 교육참여를 선호하였다.

노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별 실시 주체에 대한 선호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39.1%로 가장 높았고, 복지시설이 37.6%, 민간단체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에서는 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순으로, 읍·면부에서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공공기관을, 여자의 경우는 복지시설을 선호하였다. 연령, 건강상태, 가구소득,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특별한 추세가 없었다.

#### 4. 정책제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족내에서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의 경우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하여 재가복지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입소시설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아직 인지도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르게 설립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별 실시 주체에 대한 선호는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39.1%로 가장 높았고, 복지시설이 37.6%, 민간단체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즉, 읍·면부에 노인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민간복지자원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지역적으로 균형잡힌 복지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의료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즉,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부설로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별·인구별로 고르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과 견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노인복지과,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자원과,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간의 연계를 통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과 간호협회 및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계작업은 IMF체제 이후 향후 5년간은 공적자금에 의한 ‘확대-강화론’ 중심의 정책이 아닌, 기존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론’의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독거노인의 시설수용과 가정내에서의 부양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에스코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수행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없이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시설수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노인의 수용보호보다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개발·확대하여 노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내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고, 가족에 의한 보호도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수용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노인을 위한 장기입소시설 또한 재정비·조정하여야 한다. 